ISSUE BRIEF

이슈브리프 293호
(2021.10. 1)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신임 총재의 탄생과 과제 및 향후 전망

제293호

김숙현 대외협력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9월 29일, 신임 자민당 총재에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10월 4일 제100대 일본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일본 파벌정치의 한계가 노정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자민당 개혁과 쇄신을 공약했으나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와 아소파의 지지로 당선된 이상, 그 틀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형적인 세습정치인 집안 출신인 기시다 신임 총재는 제2차 아베 정부에서 4년 7개월 동안 외무대신을 역임, 외교 안보 면에서는 업적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기시다 총재는11월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10월 G20에서 총리로서 갖는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아베, 스가 전 총리와는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핵심어 : 기시다 후미오, 신임 자민당 총재, 일본 총리, 파벌정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신임 총재의 탄생과 과제 및 향후 전망

김숙현 (대외협력실)

기시다 후미오 후보는 9월 30일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로 치러진 9월 29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고노 다로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이로써 기시다 신임 총재는 10월 4일 제100대 일본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고노 후보는 255표를, 기시다 후보는 256표, 다카이치 후보 188표, 노다 후보 63표를 기록, 기시다 후보가 1표차로 앞섰으나 과반 획득에 실패, 결선 투표로 이어졌다. 결선 투표 결과, 고노 후보가 170표, 기시다 후보는 257표를 획득, 기시다 후보가 호소다파, 아소파, 기시다파 소속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자민당 총재선거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8월 23일 기시다 전 정조회장 출마 선언, 9월 3일 스가 전 총리의 불출마 의사표명, 9월 9일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출마 선언, 9월 10일 고노 규제개혁담당상 출마선언, 9월 16일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 출마 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초기에는 고노, 기시다, 다카이치, 노다 후보의 4파전이 예상되었지만, 사실상 고노와 기시다, 즉 개혁파와 정통파 간의 선거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다수 파벌의 지지를 얻은 기시다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번 선거는 일본 파벌정치의 면모를 다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시 외무상을 역임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인물인 기시다 후미오의 정치적 성향과 총재선거 시 발표했던 공약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적(敵)도 인기도 적은 기시다 후미오

히로시마 출신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재는 1957년 7월 19일생으로, 1993년 정계에 입문하여 현재 9선 의원이다. 조부와 부친이 중의원을 지냈고 미야자와 전 총리와도 친척관계인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 집안 출신이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오키나와 개발청 장관, 내각 특명담당대신, 과학기술청담당 대신을

거쳐,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임명되어 2017년까지 연임, 이후에 자민당 정조회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왔다. 아베 2차 내각 당시 외무상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아베 총리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현과 '지구의(地球儀)를 부감(俯瞰)하는 외교'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행보를 보였다. 그중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추진한 것은 손꼽히는 성과로 평가받는다. 히로시마는 원폭 피해지이면서 동시에 기시다의 지역구이기도 해 그 의미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기시다 신임 총재에 대한 평가는 '온화', '우유부단', '정적(政敵)이 없는 정치인' 등이 일반적이다. 자민당 내 가장 오래된 파벌 중 하나인 굉지정책연구회(宏池政策研究会)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의원 34명과 참의원 13명으로 총 47명이 소속되어 있다. 정책적으로는 보수성향이나, 안전보장 성향에서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작년 자민당 총재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당시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했던 호소다파, 아소파의 표를 얻지 못해 낙선하였다.

특이한 점은 자민당 내 의원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 있으나, 대중적 지지도는 낮다는 점이다. 차기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고노 다로나, 이시바 시게루 의원 등에 밀려왔다. 또한 아베 전 총리와 같은 강한 지도자상과는 거리가 멀어 국민적 인기는 크게 얻지 못했다. 이번 총재선거에도 이러한 특징은 잘 나타났다. 1차 투표에서 고노 후보는 의원표 86표, 당원표가 169표인 반면, 기시다 후보는 의원표가 146표, 당원표 110표를 얻었다. 결선 투표에서는 고노 후보가 의원표 131표, 도도부현(지방표)표 39표, 기시다 후보는 의원표 249표, 도도부현 표 8표를 얻어 당원표와 지방에서의 지지율은 고노 후보가 앞선 결과로 나왔다. 11월 총선을 앞둔 기시다 신임 총재로서는 낮은 지방과 국민의 지지율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의 정책 비전: 자민당 개혁, 국민의 삶 수호와 소득 증대

기시다 신임 총재는 총재선거 출마를 선언 이후,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였다. 먼저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지도자는 '나'라면서 연약한 지도자상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주된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자민당 개혁과 국민의 삶을 지키고 소득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공약인 자민당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 임원에 중견, 젊은 층 등용, 비례대표제 정년을 73세로 규정 △권력 집중과 타성 방지 △지방과의 제휴 강화 및 차기 총재선거에서 온라인 당원 투표 도입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이다. 이번 선거에서 불만이 컸던 소장파 의원들을 중용하고 다수 파벌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것인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 관련 대응으로 △위드(with) 코로나 하 의료 제공 시스템 대응 검토 △병상, 의료 인력 확보, 경제 대책, 백신접종 촉진, 치료약 개발 보급 실행 △'건강 위기 관리청' 설치 등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은 일본의 위기관리 미숙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이다. 이것은 스가 총리를 1년여 만에 그만두게 한 요인이기도 했다. 기시다 신임 총재도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숙지하고 있고 지지율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의 전환 △중산층 확대를 위한 분배 기능 강화 및 소득향상을 위한 '레이와(令和)판 소득 증대'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실현 △재해에 강한 지역 창조 및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부흥 등을 들었다. 세 번째 실천 방안은 외교 안보 분야로, △대만 해협 등의 현안에서 미국, 인도, 호주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 대응 △해상보안청의 능력 강화, 자위대와의 제휴 강화, 미사일 방위력 강화,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개정, 정보 기능의 충실화 △지구 온난화, 핵 폐기, 우주 및 해양 개발 이용 등을 언급했다.

11월 총선 승리가 중요

기시다 신임 총재의 첫 번째 시련은 11월 7일 또는 14일로 유력시되는 중의원 선거이다. 현재 자민당 지지율이 30%에 불과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기시다 신임 총재의 대중적 인기가 낮아 이를 극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할지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9월 29일 총재선거 당선 직후 일성(一聲)에서 "현재의 정치에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위기를 느껴 입후보하게 되었다", "국민에게 달라진 자민당을 보여주고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본인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서 낮은 당원표와 대중 지지도를 의식한 발언을 내비추기도 했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11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

첫째, 국민과 지방에 대해 달라진 자민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중의 지지와 당원표를 얻고도 총재에 선출되지 못한 고노 후보 지지자들을 포용하고 단결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고노 개혁상을 기시다 내각에 기용하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국민과 지방의 목소리를 잘 수용하는 자민당의 달라진 모습을 단기간에 보여주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당 임원 구성 배분이다. 기시다 총재는 당 임원에 중견 및 젊은층을 과감히 등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와 아소파의 지지를 받은 기시다로서는 주요 당직 임명에 있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후보를 지지했던 호소다파 표를 기시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벌써 다카이치를 외무상 또는 방위상에 기용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다카이치가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난관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 극복이다. 장기간에 걸친 긴급사태선언과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등으로 일본 국민의 불만과 피로도는 상당하다. 9월 30일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으나, 구체적인 코로나 대응과 향후 정책 등에 대해서대해 상세한 언급은 아직 없다. 긴급사태선언 해제로 자유로운 생활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염자가 급증한다면 이 또한 총선 승리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새로운 리더십과 한일관계

기시다 총재 탄생의 배경에는 자민당의 파벌정치가 있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파의 수장 아소 다로의 영향력 덕분에 기시다 총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민당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소장파들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당을 일치단결시킬 수 있는지는 향후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시다 총재는 5년 가까이 외무상을 역임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11월 APEC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고 경색 국면이었던 중일 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물꼬를 트이게 하였다.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합의를 주도한 경험이 있고, 2016년에는 외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일, 중일 관계 개선의 공로도 평가받았다. 이러한 기시다 총재의 경력은 외교력 발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을 두고 본다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경험이 반드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공은 한국에 있다고 하는 기시다 총재가 과연 한국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월 총선을 앞두고, 기시다 총재는 장점인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 10월에 있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첫 데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지가 주목되는데, 만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일관계의 실질적 발전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시다 총재 스스로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라고 했듯이, 아베, 스가 전 총리와는 다른 리더의 모습도 가능할지 모른다.

기시다 총재가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역사문제를 입구에 두고 다른 외교 현안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성숙하고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일본의 지도자이길 기대해 본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